

학술단신

‘종교사회복지’ 심포지엄

종교사회복지연구소(소장 이해숙)는 26일 오후 1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21세기기를 위한 종교사회복지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조계종 사회복지 실무자는 물론 가톨릭, 구세군, 성공회, 원불교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참여해 종교계 사회복지사업의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또 각 교단 대표자들이 '종교사회복지의 반성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교각 국제학술회의

조계종 영명사는 '동아시아 지장사상의 전개와 지장법사 그의 위대한 생애'를 주제로 12월12일 오전9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제1회 육신보살 종교계 사회 복지사업의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또 각 교단 대표자들이 '종교사회복지의 반성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지장법사의 사상(오형근) △동아시아의 지장사상과 신라왕자 김교각(여승구) △중국불교에 미친 지장의 영향(謝樹田) △지장신앙과 지장법사(이희재) △김지장의 차연구(王鎮恒) △김지장의 신자료 검토(허홍식) △지장시왕도를 중심으로 한 지장도 연구(김경희) △한국의 미륵신앙과 지장신앙(조용환) △11세기 김지장석상에 대하여(조영록) △중국 구학사의 지장법사와 석대암 이순석의 비교연구(최석환) △당시의 사문학(오운숙) 등이 발표된다.

‘종교연구’ 18집 발간

한국종교학회(회장 황필호)는 5일 『종교연구』 제18집을 펴냈다.

이번 논문집에는 △근대 한국 불교개혁 패러다임의 성격과 한계(이재현) △불탑 신앙의 기원과 그 본질에 대해(안양규) △고려시대의 종교지형과 유불관계(신광철) △한국의 종교, 그 존재 당위성의 여부에 대하여(최준재) 등 논문 13편이 수록돼 있다.

‘시와 불교’ 학술회의

한국불교어문학회(회장 홍신선)는 12일 서울불광사 3층 회의실에서 '시와 불교'라는 주제로 제9회 학술회의를 가졌다.

이날 '창랑시화(滄浪詩話)'가 한국불가비평(韓國佛家批評)에 끼친 영향'을 시선언어론(詩禪一如論)을 중심으로 발표에 나선 임종욱 동국대 강사는 "시선언어에 대한 연원은 염우(1175?~1264?)의 《창랑시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며 "염우의 시선언어 이론이 상당 부분 불가문집 서발에서도 거론되고 있으며, 때로는 흐름을 달리하여 재탄생 측면도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위빠사나

간화·묵조

지혜력 개발 중시 화두 행법에 비중

종호스님 '선수행법 비교고찰' 발표

선불교(禪佛敎)의 직관과 상상력이 대중문화는 물론 우리 일상과 만나는 일은 이미 낯선 일이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삶의 미망과 자유를 나직하고도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문화적 기호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선 수행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위빠사나와 간화선, 묵조선을 일목요연하게 비교 고찰한 논문이 나와 눈길을 모은다.

한국불교학회(회장장목정배)가 19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1층 덕암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제32회 추계 전국 불교학술연구 발표대회에서 종호스님(선학파 교수)은 '선 수행법 비교고찰'을 주제로 각 수행법의 특색과 차이 등을 분석, 발표했다.

종호스님은 위빠사나의 수행법이 최고 지혜를 통한 예비단계로 거쳐 호흡 등 육신의 동요에 대해 살피고 이후 느낌이나 생각 등 정신적 움직임을 살펴나가기로 하는 등 매우 세부적이면서 직접 겪게 되는 문제점들의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간화선이나 묵조선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선 수행의 핵심으로 삼는 특색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빠사나는 지혜력의 개발만이 현실에서 열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반면 간화와 묵조는 지혜의 개발보다 화두의 참구나 행법 그 자체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화와 묵조 간에 있어서도 간화는 중국의 본원경지를 인정하지만 그것이 아직 체현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관점을 갖고 묵조는 이미 완전히 체현되어 있다는 입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적 목적 또한 위빠사나는 열반을, 간화는 성불, 묵조는 본증(本證)합일을 통해 해탈을 얻은 각자(覺者)의 삶을 추구한다고 비교했다.

수행 형태에 있어서 묵조선은 좌선행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간화선은 화두 드는 것 자체를 강조할 뿐 상대적으로 거의 언급이 없다고 밝혔다. 위빠사나도 묵조와 같은 비중은 아니지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또 보다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빠사나는 경행의 방법이나 수마의 극복법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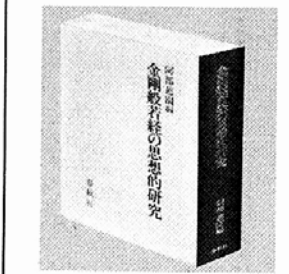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간화와 묵조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고찰했다. 경행의 경우 위빠사나는 '한 시간의 좌선과 한 시간의 경행'을 일반적으로 살하고 있으나 간화에서는 경행을 하고 있지만 수행상에서 몸의 굳어짐을 풀어주기 위한 일시적 방법이고, 묵조에서도 경행 자체를 좌선행과 동일시하면서 한 걸음 한걸음 집중하여 걸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위빠사나와 비교했다. 졸음의 극복에 대해서도 위빠사나에서는 마음의 관념을 바꾸고 자라와 자세를 바꾸며, 귀를 잡아당기고 얼굴과 눈에 찬물을 끼얹는 등 구체적인 극복법을 가르치고 있으나 간화나 묵조의 전적에서는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종호스님은 "전체적으로 위빠사나나 수행의 방법이 세부적이고 보다 직접적인 문제 해결에 중심을 두고 단계적 형태의 과정을 보인데 반해 간화와 묵조는 단도직입으로 본질에 직접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nia.com)

동양 5개국 금강경 연구 50년간 발표논문 모았다

다서 '금강반야경의 사상적 연구' 출간



한국을 비롯 일본 중국 인도 티베트 등 5개국의 <금강경> 사상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연구 논문집이 처음으로 일본에서 출간돼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가마구라 조재 목선사 주지 아베지은스님(명치대 교수)이 엮은 <금강반야경의 사상적 연구>(춘추사)에는 한일 불교계 석학 34명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이 논문집은 '인도불교에 있어서 <금강반야경>', '즉비 논리의 해석에 관해서', '티베트 불교에서의 <금강반야경>', '중국불교에 있어서의 <금강반야경>', '중국선과 <금강반야경>', '한국불교와 <금강반야경>', '일본불교와 <금강반야경>' 등 모두 7부로 구성됐다. 이 논문들은 일본 인도불

교학회, 일본종교학회, 일본 불교학회 등 일본의 주요한 학회에서 지난 50년간 발표된 <금강반야경>에 관한 대표적 논문과 한국 학자들의 논문을 수록했다.

한일 양국이 5개국 <금강경> 사상을 논문집으로 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논문집에는 우리나라 학자들의 논문 5편도 실려 있다. 원외법 동국대 명예교수의 <금강경>역래설의 해석'을 비롯 <금강경>을 시대별로 정리한 김영태교수(동국대)의 '한국의 <금강경>신본과 <금강경찬>에 대해서', 헤일스님(동국대)의 '조선초기의 기화 의 선사상', 유병덕교수(원광대)의 <금강경>과 소태산의 교관사상', 오진스님(일본 동방학원 강사)의 '한국불교에 있어서의 <금강경>'이 각각 실려있다.

이번 <금강반야경의 사상적 연구> 논문집 출간에 대해 한일 불교학계는 대승불교의 방대한 경전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금강경> 사상을 새로운 각도로 고찰한 획기적 논문집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종근 기자 (gamja@buddhania.com)



현성스님 회갑기념 논총 봉정식이 1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됐다.

현성스님 회갑기념 논총 '현대불교의 향방' 출간

새 천년을 앞두고 현 한국 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현성스님(종양승가대 총장) 회갑 기념 논총 <현대불교의 향방>(민족사)이 출간됐다.

이 논문집에는 지관(가산불교 연구원 원장)·인환(동국대 명예 교수)스님을 비롯 목정배·서운길 교수 등 국내 석학들의 논문 23편이 실려 있으며 '문화제 관련에 관한 연구', '불교청소년 복지에 관한 연구' 등 현성스님의 논문 2편이 수록됐다.

1부 '불교사상론'은 원시불교부터 신라 백제불교 등 한국불교의 사상을 총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동국대 명예교수인 인환스님이 '원시불교선정의 조직구성'을, 김선근교수가 '초기 대승경전이 간디의 무소유 사상에 끼친 영향'을, 목정배교수가 '신라불교와 범망경'을, 종범스님이 '조계

종중의 통합성'을 통해 한국불교의 사상성을 조명했다.

2부 '불교문화론'은 불교문화와 문학에 대한 논문들이 실려 있다. 문화부문에는 지관스님(가산불교연구원장)의 '사원의 창건배경을 통해 본 불교의 효사상', 문명대교수의 '고구려 재명금동불상의 양식과 도상해석의 과제' 등이, 문학부문에는 법산스님의 '선시의 세계' 홍기삼 교수의 '불교문학을 위한 한 응호' 등이 각각 실려 있다.

3부 '불교사회론'에는 홍신스님의 '포교학 서설'을 비롯 김용택교수의 '한국불교의 사회복지 실천과 과제', 김보현교수의 '불교승려 연금제도의 구성요소', 홍운식교수의 '사회변화와 종교부흥의 문제제기' 등의 논문이 수록됐다.

김종근 기자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아미산 보현도량
그래픽 파일로 보는 보현도량 '웅장' 만년사 라마탑·화엄동탑도 볼거리
인터넷으로 중국 천성 성도에 가장 유명한 불교유적을 찾아보자. 육로를 택한다면 당연히 고성도 서남쪽으로 끝없이 펼쳐진 평원을 가로질러 강줄기 저편으로 가야겠지만,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드래곤투어(Dragon Tour)'를 방문해 보현도량 아미산을 클릭하면 된다. 이 곳에서 제공하는 고품질 그래픽 파일로 보는 아미산은 눈앞에 박히듯이 달려드는 우람한 산세로 가득 찬 한 폭의 산수화다. 아미산은 문수도량 오대산, 관음도량 보타산, 지장도량 구화산과 더불어 보현도량으로 중국의 4대 불교성지 가운데 하나다. 해발 3,099m의 주봉을 둘러 산자락에는 복호사, 보국사, 만년사, 화장사 등을 비롯해 20여개 사원이 있다. 이 가운데 보국사는 아미산 전도량의 총본산격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보국사의 사찰 구조를 그래픽 파일로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찰이 보현도량임을 설명하는 중국불교협회 조박초 회장의 글도 텍스트 파일로 읽을 수 있다. 보국사란 권역의 산문이 있고, 그 뒷면으로는 보조선림이란 관액이 앞뒤로 걸려있다. 선(禪)불교의 일면을 엿보게 한다. 산문 좌우에는 법고와 금고를 매단 누각이 좌우 일직선상에 배열돼 있다. 산문 안쪽에는 미륵불을 모신 미륵전이 있다. 석가여래좌상을 주불로 모신 대웅보전이 있다. 대웅보전을 지나 이 가람의 제일 안쪽에는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www.wellesian.com/dragonour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시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따미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 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총복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기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육고(경육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시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양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출선식(2개월 50만원), 슬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은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체에 작용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053) 655-2227 (011) 808-8880